



법조인 동정

최선웅 충북대학교 로스쿨 교수, ‘대한민국학술원상’ 수상

최선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교수가 제67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과학부분을 수상했다.

대한민국학술원(회장 이장무)는 지난 총회에서 최 교수를 포함한 인문학, 사회과학, 자연과학기초, 자연과학응용 4개 부분별 2명씩 총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. 수상자들은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1억 원 상당의 메달과 상금을 받는다.

사회과학 부문을 수상한 최선웅 교수는 국내 법과 관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‘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’을 다년간 연구해온 대표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. 그는 저서인 ‘재량과 행정쟁송’을 통해 우리나라 법학이 탈일본화에 이어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정립했다. 이 책은 독일어 등으로 번역돼 수출될 예정이다.



최선웅 교수

최선웅 교수는 “우리나라 법학은 과거 식민시대의 일본 메이지법학에 이어 그 원조격인 독일 프로이센의 관헌 국가법학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.”며 “법학의 탈독일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아우르는 제3의 대안법학인 한류법학을 구축해 전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.”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.

(출처/법조신문)